

김종식 목포시장, 현안 정부 협조 요청

정세균 국무총리 등 면담 사업 당위성·재정지원 필요성 설명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기능개선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난 9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을 차례로 만나 우리시 현안사업 당위성과 정부 재정지원 필요성을 설명하며 정부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해 1월 공모 선정된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면제, 지방특색이 반영된 사업예산 지원 등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 중이며, 도시별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202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을 만나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기능개선'에 대한 정부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목포역은 지난 1979년 7월 신축·완공한데 이어 2004년 4월 KTX 운행으

로 증축돼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후화되고, 비좁아 이용객 불편을 구조적으로 안고 있다. 또한 KTX 수요에 비해 운행횟수가 적어 열차표를 구하기 어렵다는 민원도 많다.
목포시는 이런 불편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일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기능개선'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와 기능개선을 통해 KTX를 확충하고, 역사 현대화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원, 광장,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겠다는게 시의 구상이다.
김종식 시장은 "정부도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며 "재정난 속에서도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기자

함평군, 자체개발 토종상추 '흑하랑' 기능성 식품개발 원료로 납품한다

함평군이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자체 개발한 상추 신품종 '흑하랑'을 기능성 식품개발 원료로 납품한다.
아직 시범재배단계라 소량이지만 서울 소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의 협의 끝에 군 농산물가공센터에서 동결건조한 흑하랑 500kg을 우선 납품하기로 했다.
11일 함평군에 따르면 전남농업기술원은 최근 숙면 유도 성분이 다량 함유된 토종상추 '흑하랑' 품종 개발에 성공했다.
신품종 흑하랑은 숙면 유도와 긴장 완화에 탁월한 락투신, 락투세린 등의 성분이 일반 상추보다 124배 가량 많이 함유됐다.
재배기간도 45~70일 정도밖에 안 돼 연간 4회 수확이 가능하다.



함평군 농산물가공센터에서 흑하랑을 동결건조하기 위해 세척하고 있는 모습

특히 우월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쌈채소로는 물론 식·의약 신제품 소재로도 가능성이 높아 충분한 시장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함평=김광춘기자

서영암농협 '영암군 농·특산물' 수도권 공략



(왼쪽부터) 서영암농협 양종승상무, 서영암농협 김원식 조합장, 서울관악농협 이미지 여성복지과장

5일간 서울관악농협 주관 '학이 머문 쌀' '명품고구마' '무화과' 판매·우수성 홍보

서영암농협(조합장 김원식)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서울관악농협 주관으로 개최한 '우리 농·특산물 소비촉진 직거래 대잔치'에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는 서울관악농협과 도농상생 자매결연에 따른 조정으로 태풍 및 폭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농협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행사에 참여하였다.
서영암농협은 친환경 유기농쌀의

고유브랜드인 '학이 머문 쌀'과 영암군 특화상품인 '명품고구마', 산호농협 '무화과', 금정농협 '대봉말랭이' 등을 직접 판매하고 영암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였다.
특히, 친환경 유기농쌀인 '학이 머문 쌀'을 집중 홍보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으며, 행사기간동안 3,00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하였다.
김원식 조합장은 "어려운 농촌 현실을 극복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미래농업의 대세인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유통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높은 부가가치를 올려 농가소득 창출로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신안군, 1004섬 수변공원 준공식 개최

1004섬 수변공원 1·2호 준공식이 지난 9일 신안군수, 군의원, 관계자 등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금번 준공된 '1004섬 수변공원'은 농업용 방죽의 주변 공간을 활용해 수목을 식재하여 인근 주민들이 산책로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수

변공원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미세먼지 저감과 녹색공간 확충을 위한 이 수변공원이 주민 여러분의 건강 증진과 힐링 공간으로 애용되길 기대한다며, 항상 쾌적한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함께 가꾸어 나가자"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전국 최초 '영광 주민주도형 태양광 발전단지' 6.2MW 조성

5개마을 1030세대 전원 참여

영광군은 백수 하사리 일원 약 10만㎡ 부지에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자하여 발전소 인근 5개 마을(상·하사리, 지산리, 약수리, 신성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였다

민들이 안정적인 농의 수익 연 810백만 원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에너지 전환 사업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실질적 소득 증대를 이끌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홍보 및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택

다른 사업들을 고안하고자 노력한 영광군의 결과물이다.
또한 2021년에는 국내 최초 공공주도형 2MW규모의 "도민발전소"와 8.4MW규모의 "군민 햇빛 발전소"를 조성, 주주참여를 공모하여 1천여 군민들과 개발이익을 공유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영광=서희권기자

무안군, 문화관광해설 역량강화에 나선다

무안군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무안문화관광해설사와 해설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해설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론과 현장실습 교육으로 나눠 진행되며 이론교육은 무안의 숨은 문화관광자원과 지역에서 활동한 의병, 고건축에 관한 전문지식 등을 전달하고 현장교육은 해운사, 다

경진성 등 관내 주요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등을 직접 찾아가 강의와 답사를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역량강화 교육으로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관광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해설사의 전문성과 해설능력이 향상되어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